

미리 준비하는 목장관리

〈자료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 일반 사양관리

올해는 가축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여름철 폭염에 시달려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여름을 간신히 넘긴 것 같았으나 연이어 강풍을 동반한 태풍 불라벤과 덴빈의 내습으로 농작물은 물론이고 가축, 축사시설물 등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제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한다. 폭염으로 많이 지치고 체력과 생산성도 확연히 저하되어 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젖소의 건강과 생산성을 정상으로 회복해야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남아있던 사일리지의 품질은 연중 최저의 상태로 기호성도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대체할 영양원으로 양질의 건초공급을 증가하고 배합사료 내 에너지량을 증가시켜 영양공급 증가로 빠른 체력회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름의 폭염과 폭우로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옥수수사일리지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옥수수 수확시기가 늦어 사일리지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그리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갑작스런 기온저하에 대비하여 보온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면역적응력이 떨어진 송아지 환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사양관리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로 인한 젖소들의 피해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체별 영양관리에 신경써야한다. 또한 사료급여 수준을 검토하여 충분한 건물섭취량과 균형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한다. 특히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사료섭취량 저하방지를 위해 에너지수준 증가와 미량광물질 추가 급여 등으로 배합비를 조절해 식욕을 회복시키고 건물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급여하던 사료급여수준에 대한 분석, MUN(우유 중 요소태 질소) 분석 등을 통하여 최

적의 배합비로 조절하여 산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름철 저조했던 번식활동이 체중증가와 함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적기 발정 발견과 적기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수태당 종부횟수를 줄이는데 힘을 써야 하고, 분만 후 자궁회복과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 후 비유 초기에 조·농 비율을 농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고영양분,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여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섬유소 함량은 15~17%가 유지되도록 하며 빠른 시간 내에 건물섭취량이 최대가 되도록 해준다. 또한 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 보유한 개체의 능력을 파악하고 젖소 혈통등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체형심사 및 교배계획에 의하여 근친교배가 안 되도록 정액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젖소 개량을 실시하여 고능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목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다.

◆ 방역 및 위생관리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허약해진 젖소를 개체별로 진단을 실시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젖소의 주요 도태 원인은 유방염, 발굽질환, 번식장애, 분만 후 대사성 질병 등일 것이다. 산유량이 높은 고능력우, 특히 분만 직후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미량 광물질을 보충 급여하는 것이 번식 능력을 올리는데 필수적이다. 발굽병은 여러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주로 우상 및 축사의 상태, 정기적인 삭제 미실시, 창상 및 감염, 불균형적인 사료급여에 따른 단백질 과다 등이다. 발굽 병은 번식효율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발굽 병에 걸린 소가 번식효율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굽 병으로 인한 두당 평균 유량감소도 20~50%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기적인 발굽 삭제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초지 및 사료작물

월동용 추파작물은 적기에 파종되도록 준비하여 파종한다.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유채나 연맥은 9월 초순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호맥 등 월동을

하는 작물은 중순경에 파종하여 수확량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가을철 목초파종이 늦어지면 어린 목초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아 동사하기가 쉬우므로 9월 초순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 목초가 충분히 성장한 다음 월동할 수 있도록 한다. 파종시에는 복토와 진압을 철저히 하여 종자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초지가 있는 농가에서는 초지조성 및 보파갱신을 조기에 완료하여 월동에 따른 생존율을 높인다. 목초를 수확하여 급여할 경우 이슬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풀은 되도록 오후에 예취하고 이슬에 젖은 풀은 말려서 급여토록 한다.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최순호, 백광수, 박성민, 김태일>